

불꽃쇼·고공쇼...확 달라진 광주김치축제

25~27일 광주김치타운서
낮에는 김치 판매·전시·체험
밤에는 각종 영상퍼포먼스
해외바이어 방문...수출 모색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치타운에서 '제26회 광주세계김치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김치 광주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행사장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는다.

우선 김치를 판매하는 부스는 기존 축제장에서 볼 수 있는 몽골텐트 대신 김치의 원부재료 색감(빨강, 파랑, 하얀색)을 표현한 부스데이가 설치된다.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야간행사에서는 주제공연인 '김치불꽃쇼'와 김치축제만을 위한 창작 작품인 고공영상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문화공연에는 아리술, 일수, 아나포, 5개 구청 주민센터 회원, 대학동아리 등 모두 광주시민으로 구성된 예술단이 참여해 시민참여형 축제로 치러진다.
광주세계김치축제의 꽃인 김치 요리 경연대회인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가 25일 열린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대통령상

을 누가 차지할지 주목된다.
또한, 김치의 새로운 변신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치요리 발굴을 위한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 삼성전자와 광주시가 합력 지역의 청년 요리가를 발굴하는 스마트 쿠킹 페스티벌 등 다양한 경연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광주 토속 김치와 전남지역의 풍가에서 전해 오는 김치를 볼 수 있는 '광주·전라도 토속김치 특별전'과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김치와 전통음식을 재현해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여는 '고려인 김치와 전통음식 전시·시식'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이밖에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배추김치,

파김치, 갓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김치 배부림체험이 진행되고, 광주 유일의 김치 식품명인인 오숙자씨와 함께 만드는 '반지',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김치를 배울 수 있는 '김치 아카데미' 등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김치축제에는 미국과 헝가리 등 바이어 4명이 김치축제장을 방문키로 해서 김치축제 산업화를 위해 김치수출에 노력해온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5일 개막식에는 '김치가 주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멀티미디어(조명, 레이저 영상, 고공퍼포먼스) 고공쇼와 김치 불꽃쇼와 함께 대세가수 송가인 씨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행안부 '국민 안전교육 이행' 광주·광산구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점검단위별 우수기관은 중앙부처 6개, 광주, 서울 등 시도 5개 기관, 광산구 등 시·군·구 68개 기관이다.
광주시는 ▲시민안전교육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안전교육 추진기반 마련 ▲가족중심 '안전문화 3·3·3운동 실천행사' 정례화 ▲자치구 통장회의 활용 가정분야 '안전문화 3·3·3운동 안전교육'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산구는 '기적의 4분'이란 심폐소생술을 대신인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효과 제고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제작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건축상 금상 '아크레타 양림'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금상에 선정된 남구 양림동 '아크레타 양림' 전경.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시건축사회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공모전에는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아크레타 양림'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설계, 인벤테라건설 시공)은 기존에 있는 한옥과 감나무, 골목들을 잘 살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광주시 마을현안 해결 주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광주시는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온라인플랫폼'을 구축·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사)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함께 구축중인 온라인시스템 '마을e적척'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간 자치구 통 단위에서 열리고 있는 마을총회 등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엔 시범운영되는 곳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광주형 협치마을들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학운동과 지산2동, 서구 서창동과 금호1동·화정1동, 남구 방림2동·사직동, 북구 문흥2동·용봉동·일곡동, 광산구 비아동 등 12개 마을이다. 운영은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총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맵핑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주민투표는 금호1동 등 10개 마을이 마을총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투표와 함께 스마

트폰 앱 '마을e적척'을 이용해 채택 여부를 온라인 투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맵핑(동네한바퀴)은 일곡동 등 4개 마을이 주민이 직접 동네를 돌면서 발견한 지역 문제점이나 현안에 대해 스마트폰 앱에서 제안하고 토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 가능한 마을자원을 지도형태로 시각화하는 '온라인 마을지도'와 자기가

12개 광주형 협치마을부터 시범운영
핸드폰 주민투표·마을지도 제작 참여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市보건환경연, 대기오염이동측정차 운행

오존 등 61개 항목 측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사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해 고정식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 시민 생활지역, 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 운영시스템은 차량을 측정지점으로 이동·배치해 1주일간 24시간 연속 대기질을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자료는 연구원에 실시간 전송해 분석한 후 유관기관 및 시민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측정항목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



질소(NO2) 등 6개 항목으로, 실시간 측정한다.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55개 항목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실에서 정밀 분석을 실시한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축으로 산업단지 및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과 초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서구 금호동 도시공사 1단지 주변 보행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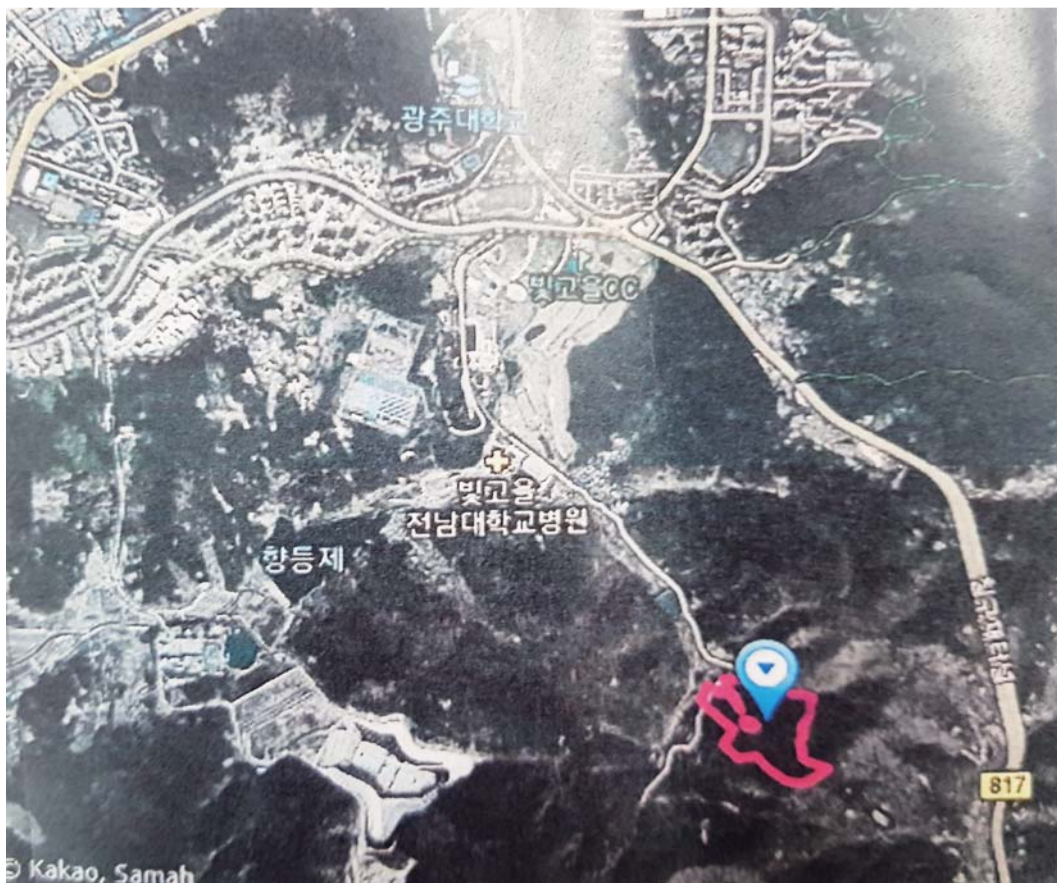
광주시가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서구 금호동 도시공사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11회 현장 경정의 날'을 개최하고 아파트 보행로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현장 경정의 날'에는 이용섭 시장과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원, 서대석 서구청장, 황현택 광주시의원, 강기석·윤정민 서구의원, 아파트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시장 등은 아파트 거주민들과 함께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진 보행로를 살펴보고 고층사항을 점검한 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호동 도시공사1단지 아파트가 있는 금화로 115번길은 1998년 택지 조성 시 식재된 메타세쿼이아가 20년이 지나면서

나무둘레가 굵어지고 뿌리가 지상으로 돌출해 보행로를 잠식했다.
특히 일부 구간은 보행 폭이 1m 이내로 좁혀져 산책 나온 가족, 자전거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보행로 대신 차도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존 보도나 도로를 확장할 여유 공간이 없고, 환경측면에서 가로수 보존에 대한 의견도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아파트 경계를 만드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용섭 시장은 "보도를 확장할 여유 공간이 없는 만큼 그간 논의되었던 담장 허물고 나무를 심는 사업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주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북구,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가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년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해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

고 관련 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31개 기관·단체와 9명의 개인이 선정됐다.
북구는 구민 지향적 교육편의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기부 문화를 활성화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